

# 광주 대촌중앙초, '예술꽃 씨앗학교' 신규 운영학교 '최종 선정'

### 전교생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 최대 4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 전문 예술강사 활용 수업·교육기자재 구입·문화예술체험 등 지원

광주 대촌중앙초등학교가 최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공고한 2023년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 신규 운영학교(15기)에 최종 선정됐다. 지난 9일 대촌중앙초에 따르면 '예술꽃 씨앗학교' 사업은 전교생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 최대 4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간 8,000만 원~1억 원의 보조금을 4년간 교부받아 전문 예술강사 활용 수업, 교육기자재 구입, 문화예술체험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펼칠 수 있다. 전국 초, 중, 고 대상으로 모집하는 이번 사업에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선정된 11개 학교 중 광주·전남 지역에서

대촌중앙초가 유일하다. 대촌중앙초는 이번 예술꽃 씨앗학교 사업에서 '학교-예술단체 협력형'으로 선정되어 시각, 소리, 공연, 영상 분야의 다양한 예술가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자신이 희망하는 분야를 직접 선택하고 예술가와 함께 창작해보며 그 결과를 '꿈, 끼, 멋 발표회'에서 마을 축제 방식으로 나누어볼 예정이다. 특히 대촌중앙초는 전통적으로 풍물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해왔다. 이번 예술꽃 씨앗학교를 계기로 학생들이 다양한 영역의 문화예술이 하나가 되는 체계를 해보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로 자라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예술꽃 씨앗학교 수업이 진행될 교내 유휴 공간을 마을공동체와 직접 복합예술공간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학부모 재능기부 등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대촌중앙초 구영철 교장은 "예술꽃 씨앗학교의 전교생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해 소규모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되살아나는 계기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 광양와우초, 지구지킴이 콘서트 공연 관람



광양와우초등학교는 최근 샌드아트와 클래식이 들려주는 스위트지킴이의 '지구지킴이 콘서트'를 개최했다. '지구지킴이 콘서트'는 클래식 음악과 샌드아트를 융합한 공연으로, 동물의 사육제라는 클래식 음악 작품을 재창작하여 지구온난화로 인해 자연과 동물들이 하나둘씩 지구를 떠나는 과정을 샌드아트로 시각화하였다. 이를 통해 떠도는 동물들의 마음 소리를 클래식 '동물

의 사육제' 재편곡 음악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융·복합 예술 공연이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하고 공연문화를 즐기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학생들은 샌드아트의 아름다운 시각적 표현과 클래식 음악의 화려한 선율을 동시에 경험하며, 자연과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공연 중간에는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관객과 직접 소통하며 함께 나누기도 했으며, 마지막에는 학생들과 함께 폐품으로 만든 악기로 피날레 곡을 연주하는 시간을 가져 학생들의 큰 참여를 이끌었다.

광양=김현근기자

## 무안특수교육지원센터, 진로 및 직업 현장체험학습 실시



무안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난 8일 무안 관내 특수교육대상 초·중학교 학생 및 교사 80여명을 대상으로 화순치즈체험학교에

### 특수교육대상 초·중학교 학생 및 교사 80여명 대상

방문하여 '꿈을 찾아 떠나는 즐거운 하루'라는 주제로 진로 및 직업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화순치즈체험학교 피자 및 치즈체험활동은 먼저 도우를 만들고 치즈를 포함한 여러 재료를 토핑으로 얹어서 피자를 만드는 체험과 직접 치즈 만들기 등을 통해 치즈에 대해 알아보고 맛보는 체험이다. 이후 만든 피자 치즈를 먹으면서 오감을 발달하고 성취감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오후에는 야외활동(레일설매타기, 팽튀기만들기, 골프체험)을 통해 다양

한 체험활동으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하루를 만들었다.

이 날 체험학습에 참여한 해제남초 송00교사는 "무안 관내 학생들과 함께 모여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무안교육지원청 김선치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기자

## 순천대박물관, 남도 정예작가 10선 초대전

국립순천대 박물관은 '남도 정예작가 10선 초대전'을 통해 민화 화가 심예성 작가의 전시 '민화홀릭'전을 지난 5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목포대-전남대-순천대 박물관에서 순회전시 중이라고 밝혔다. '남도 정예작가 10선 초대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대학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3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순천대-목포대-전남대 박물관에서 공동으로 진행되는 순회전시이다.

광주·전남 작가 10명을 선정하여 개인작품전을 3개의 대학박물관에서 개최, 총 30회의 순회전시를 진행한다. 심예성 작가는 10명의 작가 중 유일한 민화 화가이다. 민화는 민간에서 일상생활 양식이나 관습 중 민속적인 내용을 그린 그림으로 민화를 통해 당시 민중들이 살았던 환경,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소망, 생활풍속, 힘겨운 삶을 이겨내는 의식과 멋을 엿볼 수 있다.

순천=김승호기자

## 화순오성초, '꿈을 굶는 아이들' 요양원에 직접 만든 빵 나눔

### 공감적인 문화와 사회통합의 발판 마련

화순오성초등학교는 지난 2일 '꿈을 굶는 아이들' 동아리에서 요양원(광주 매월동 평안의 집)을 대상으로 직접 만든 빵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꿈을 굶는 아이들'은 전문 강사와 함께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한다.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활동 결과물을 기부함으로써 공감적인 문화와 사회통합의 발판을 마련한다. 직접 만든 빵을 3회에 걸쳐 나눔 예정이며

방문해 어르신과 시간을 함께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낼 계획이다.

이은경 지도 강사(익히다 대표)는 "장애이해 교육과 통합교육에 끝나는 것이 아닌 사회적 통합에 한 걸음 다가가는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다"면서 "다른 기관들도 더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누는 활동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교장 최연옥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협력하여 이웃들과 나누다니 더욱 뜻깊다"라



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화순=박순철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